제 379 호 1991년 11월 24일 창간 1999년 4월 18일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9년도 표어 ◈

"우리를 고치시는 그리스도"(마8:7)

◈ 4대 실천강령 ◈

1. 은혜 주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먼저 회개한다.
2. 고치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서로 위로한다.
3. 보혜사 성령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바친다.
4.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발 행 인: 이 종 윤 발 행 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 - 3 전화 (02) 517 - 7651 ~ 5 팩스 (02) 512 - 1225

오늘은 장애인주일

오늘은 장애인 주일이다.

1988년 우리 나라에서 열렸던 장애인올림픽을 계기로 지정된 장애인 주일은 올해로 11년째를 맞는다.

우리 교회는 장애인을 위해 교회 설립 초부터 사랑부를 개설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

사랑부에서는 오늘 장애인 주일을 맞아 학습 · 세례식을 거행한다. 이에 앞서 사랑부에서는 지난 11일(주일) 학습 · 세례자 문답식을 가졌다.

한편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는 사랑부 학생들이 준비한 합창으로 온 교우들 앞에서 특별한 순서를 갖게 된다.

고난주간과 부활절 그리고 장애인 주간이 나란히 있는 4월. 목마르고 배고프고 헐벗고 병들고 갇힌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향한 사랑과 관심을 갖는 아름다운 계절로 삼아야 할 것이다.

북한난민 UN청원 발대식

북한난민보호 UN청원추진위원회 발대식이 16일 오전 7시 30분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관 강당에서 2백여명의 교계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발대식에서 UN청원추진위원회(위원장 이종윤 목사)는 UN과 전세계에 보내는 성명을 발표하고 기아를 피해 북한을 탈출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할 것과 이들을 위한 수용소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발대식 후 운동본부(본부장 김상철 장로)는 1천만명 서명운동에 들어가 한국 뿐 아니라 전세계를 대상으로 청원운동을 펴고 서명을 받기로 했다. 운동본부는 8월 15일까지 1차 서명을 받아 UN에 보낼 계획이다. 또한 운동본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코피 아난 UN사무총장에게 보냈다.

한편 이날 발대식에서 UN청원추진위원장에는 이종윤 목사, 청원운동본부장에는 김상철 장로가 선임됐으며 고문에는 한경직 목사와 빌리그레함 목사 그리고 존 스토트 목사 등이 추대됐다.

●교구일꾼수련회 특강●

"다락방 목회 어떻게 할까?"

이종윤 목사

모이는 교회는 또한 흩어지는 교회 사명도 가져야 한다. 다락방이 바로 그 흩어져 있는 교회다. 다락방 교회는 초대 교회 당시 성경적 교회의 모습을 대표한다.

주일에 모이는 교회에서는 극히 제한된 시간에 교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참 교회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가르침을 받는 것을 가지고 자기 동네의 다락방에서 적용하고 그 진리를 체험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락방 교회야말로 목회의 진수요 가장 중요하다. 우리는 다락방 일꾼으로서 자신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다시 확인해야 한다.

다락방 목회란 무엇인가? 사도행전 2장 37-42절에 초대교회의 다락방 목회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1. 구원 운동의 중심지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구원의 운동이 다락방에서 일어난 것을 말한다. 47절에 이날에 구원받은 자의 수가 더해 갔다고 한다. 구원 운동은 선교(전도)운동이다. 다락방 일꾼들은 구원 운동의 앞선 지도자들이다. 구원 운동이 시작되면서 3000명이 더 믿게 됐다.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몇 단계가 필요하다.

① 죄책감(행2:37). 죄의식을 느끼는 것이다.
② 회개(살전1:9).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행위다. 새 길을 가는 것이다.
③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믿음(38절, 요5:24).
④ 세례(38절).
⑤ 사죄(요1서 1:9).
⑥ 성령 임재(38절).

2. 교육 운동의 중심지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행2:42)고 했는데 사도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신구약 성경 즉 영감된 하나님 말씀을 배워 신앙과 생활의 표준으로 삼고 적용케 해야 한다.

3. 성도의 사귐 운동의 중심지다

42절에 서로 교제한다고 했다. 예루살렘 다락방이 교제의 중심지다. 교제(κοινονια)는 참여하는 것이다. '교제하며 떡을 떼며'(42절)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46절). 논쟁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기쁘고 은혜로운 대화를 해야 한다.

기도의 교제가 중요하다(행2:42). 서로 위해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화답하여 기도해야 한다. 믿음 가진 이들이 함께 있는 것이 교제다(44절).

4. 서로 도우며 사는 삶의 중심지다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44절). 서로 용납하고 서로 말을 들어 주고 서로 자기를 공개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라. 그리고 서로 격려하며(히10:24) 서로 용서하고 짐을 서로 져 주어야 한다.

5. 예배 운동의 중심지다

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라(42절).
② 놀랄 일들이 나타난다(43절).
③ 존경과 칭찬의 대상이 된다(47절).
④ 구원의 강한 역사가 나타난다(2:47).

이사야 강해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이사야 20장 1 - 6절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 중 하나는 언어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증거를 해주시다가 인간들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므로 때로는 몸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제자들의 발을 닦으신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본문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예언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사람들이 허리에 베로 허리띠를 묶고 다녔는데 이사야는 이것을 끌렀다고 했으니 이것은 벌거벗은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명령을 받고 삼 년간 행동언어로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과 에티오피아(구스)와 블레셋을 의지하면 이와 같이 전쟁포로가 되어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끌려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1. 예표로서의 선지자

기원 전 711년 앗수르 왕 사르곤은 군대장관 다르단을 보내 블레셋의 아스돗을 쳐서 취했습니다. 이 일로 유다는 물론이고 애굽과 에티오피아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바로 이 해에 하나님의 종 이사야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말씀을 합니다. 애굽과 구스가 곧 포로로 끌려가되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끌려갈 것을 의미하며 이사야 선지자는 이 모습을 직접 몸으로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에 우리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며 이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큰 일을 하게 됩니다. 유다는 앗수르가 아스돗을 취하므로 두려움에 빠졌을 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앗수르가 아스돗을 쳤을 때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애굽과 구스에 하나님을 의지 하지 않고 인생을 의지하다가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이스라엘 거리를 다니며 이와 같이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2. 선지자의 상징적 행동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창 26:24)과 모세(민 12:7)와 갈렙(민 14:24)과 욥(욥 1:8, 42:7)과 스룹바벨(학 2:23)을 향하여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사야 선지자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그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이사야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는 것은 예언의 예표이며 그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징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게 회개를 재촉하시기 위해서 징조를 보이신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갑옷을 입지 않은 상태를 나체(nudes)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믿음의 갑옷을 입지 않는 사람은 벌거벗은 사람과 같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애국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역시 애국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자기 민족이 살아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같이 행동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귀족이었고 학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삼 년씩이나 벌거벗고 다니면서 예루살렘 거리를 다닌 것은 조국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3. 상징이 보여주는 교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고 우선할 때 지체없이 그 대상을 제거하십니다. 성경에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구별하신 이유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두실리 없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믿어야 할 유다는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제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합니다.

"앗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 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네 허리에서 베를 끄르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삼 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의 사로잡힌 자가 앗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젊은 자가 다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

이종윤 목사

성도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히 6:18).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얻고 피난처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저주의 산물이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어려움과 육신의 고통이 있을 때 예수님 안으로 피하고 영원히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환난날에 하나님께 피할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은 큰 복입니다. 어려울 때 피할 수 있는 곳이 있는 것처럼 복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시 23:1).

부자는 은행에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며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사람이 만가지 복을 받아도 이 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모시고 그 안에 살 게 된 것을 큰 복으로 믿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부 이야기

거북이와 토끼

박순자(권사, 사랑부 교사)

1991년 교회 창립예배를 드리고 난 후 사랑부를 개원키로 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 남학생 한 명과 많은 교사들이 개원 예배를 드렸다. 그 한 명을 보내 주신 것만으로도 사랑부교사들의 마음은 얼마나 감격했는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피부로 느껴졌다. 그후 여러 교사들의 헌신과 수고로 학생수가 늘어갈 때마다 감사의 마음이 솟구쳤다.

학생 1명에 교사 1명이던 초창기 사랑부 예배와 지금은 너무 많은 차이가 있다. 이제는 본당에서 예배를 드려도 흐트러짐이 없는 성숙한 모습을 갖췄다. 사랑부 학생 중에는 천국에 간 아이도 있으며 후원자가 없어 외지로 쫓겨간 아이들을 생각할 때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자유롭지 못한 팔로 성경을 쓰거나 자연스럽지 못한 언어로 성경을 외우고 찬양할 때는 뜨거운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도전을 받기도 한다. 사랑부 율동 시간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운동이라는 목적이 있기도 하지만 찬양 속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뵙는 시간이다. 일어서지 못하는 아이들을 교사들이 일으켜 세우고 율동을 하게 되는데 아이들 사이사이로 안수하시며 다니시는 예수님을 뵐 수가 있다. 많은 아이들이 기적을 체험한다. 일어서지 못하는 아이가 의자를 붙잡고 일어섰으며 그 얼마 후에는 벽에 기대어 혼자 일어서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고 밥을 흘리며 먹던 아이도 차분하게 먹는 모습을 보며 자기만 알던 아이가 친구를 돌아볼줄 아는 넓은 마음으로 변하고 식사 후에는 주방에 그릇을 갖다 놓고 청소기를 가져다 청소를 하는 등 자발적인 자세로 바뀌어졌다. 우리 사랑부에는 다섯 돌된 찬양대가 있다. 찬양대가 처음 조직될 때 장애자에게 찬양대가 과연 필요한가 하는 우려의 소리가 한편에서 있었다. 하지만 몇몇 교사들이 자비를 들여 가운을 맞추고 필요한 것을 준비하였다.

교회가 반포동으로 이전한 이듬해 3월17일 별관에서 첫 예배를 드린 후 많은 교사들이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나날이 발전을 거듭하는 찬양대원들은 연습시간에 먼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기 위해 사람을 창조하셨고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곡조 있는 기도임을 알고 찬양한다. 혹여 찬양 연습이 흐트러질 때는 연습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고백시키고 연습을 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게 된다. 보통 장애자가 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곡도 우리 대원들에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들은 도구이고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주가 쓰시겠다" 하시면서 끌어오라고 명하셨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찬양대원들이기에 보통 서너번 연습하면 모두 익히게 되는데 성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는 한 달을 연습하며 익히게 되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수준과는 거리가 멀다. 그들의 마음은 순수하기에 곡을 익히고 난 다음에는 눈을 감고 그 곡에 취해 찬양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된다. 우리 사랑부 아이들은 거북이 같다. 한없이 느리지만 목적지까지 인내하며 기어가는 거북이 같다. 토끼같이 빨리 가지 않는다고 재촉할 필요는 없다.

토끼는 토끼로 인정하고 거북이는 거북이로 인정해 주기 바란다. 불편한 모습이지만 동정어린 눈으로 볼 필요는 없다. 사랑이라는 미명아래 내가 그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그들이 잘못했을 때 꾸짖어 주는 것이 참된 사랑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들은 건강한 사람에 비해 조금 더 아프고 불편할 따름이다. 건강한 사람을 대하듯 우리 사랑부 아이들을 대해 주기를 원한다.

11일에는 학습 세례자 문답이 있었다. 그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었다. 1992년 개원하여 여덟 살이 된 사랑부, 이제 그들은 믿음의 대장부들이다. 거북이처럼 느리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까지 자랄 것이다. 또한 우리 교사들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함에 최선을 다하리라 다짐한다.

하늘에 간 성미에게

하나님께 드린 것

신정순(집사,11교구)

성미야! 오늘은 아침부터 종일 비가 오는구나. 습관적으로 우산을 챙겨주던 엄마의 허전한 마음은 어느새 날개를 달고 하늘나라로 간 너에게 달려가고 있단다. 비 속에서도 생명을 온몸으로 피어올려 터진 꽃잎에 아주 연한 분홍 파스텔을 칠해 놓은듯 꿈 속같은 아름다운 벚꽃…. 슬프도록 아름다운 백목련은 4월의 순결을 선포라도 하듯 하늘에 매달려 있는 봄.

성미야, 이땅에도 봄이 오면 이렇듯 아름답건만 하늘 나라의 풍경은 우리가 감히 상상이나 하겠니? 성미야 행복하지? 성미가 엄마 품을 떠난 지도 벌써 두 해 두 달이 지나는구나. 그때는 눈이 많이 왔었지. 우리 성미가 가장 예쁘고 가장 꿈을 많이 꿀 때 하얀 눈길 속에서 천국으로 떠났단다. 아플 때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찬양을 부르며 잘 참아낸 것이 엄마에겐 지금도 아픔으로 남아 있다. 우리 성미가 영문과 교수님이 되어 엄마에게 효녀딸이 되겠노라고 예쁜 편지지에 써넣은 편지를 오늘도 읽어보며 목이 메이는구나.

성미야! 성미가 그토록 아름답고 신비한 천국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세월이 왜 그리 길고 쓰린지 쏟아지는 장대비 같은 눈물로 하늘을 적시며 숨을 쉬고 살아간다는 현실이 싫어 앓아 누운 날도 많았지…. 어찌 딸을 잃은 엄마의 심정이 그 대가도 치르지 않고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겠니? 죽음 가운데 아들을 내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이다. 힘들 때마다 성령님께서 품어주시고 위로의 작은 속삭임으로 눈물을 거두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새 힘을 얻어 이 시간까지 살게 해주신 은혜 감사할 따름이란다.

성미야! 두 주일전 부활절을 맞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깨닫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감사와 회개의 눈물을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면서 커다란 하늘의 평안을 선물로 받았단다. 이 평안을 얻은 엄마는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지 몰라 자꾸만 눈물이 나는구나. 우리 성미를 하나님이 데려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고 고백하자. 엄마도 주님께 몸밖에 드릴 것이 없다고 고백하며 영원히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련다. 호흡이 끊기지 않는 한 엄마에게 주신 고난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사랑을 땅끝까지 전하고 오늘도 작은 손길이 되어 몸된 교회에 죽도록 충성할 것을 간절히 소원한다.

생명 강가에서 면류관을 쓰고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성미를 생각하면서, 엄마가.

4월 학습 · 세례식

4월 학습 · 세례식이 21일(수) I · II부 예배 시 거행된다. 11일(주일)과 18일(주일)에 실시한 학습 · 세례자 교육에 미참한 성도는 19일(월)추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학습 · 세례자 문답은 20일(화)에 실시된다.

교사영성수련회 개최
22일(목) 오후 9시

교사영성수련회가 22일(목)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층 예배실에서 개최된다.

"우리를 고치시는 그리스도"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수련회는 주제에 비추어 교회학교의 전반기 활동을 돌아보며 더 나은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또한 올해의 홍해작전에 교회학교는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를 심도있게 토론할 예정이다.

수련회는 이종윤 목사의 인도와 설교로 예배를 드린 후 이동현 목사(126중보기도회 총무)의 특강, 친교, 찬양, 기도회 등으로 진행된다.

교사영성수련회의 참가대상은 13개 교회학교 교사 전체이며 교회학교 교육에 관심있으신 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비전2020운동 요원 임명
23일(금) 오후 7시 발대 모임

'99 비전2020운동 요원을 임명하는 발대모임이 23일(금) 오후 7시 202호실에서 열린다.

"사랑은 이웃에게 복음은 만민에게"라는 표어 아래 새로이 발족하는 '99 비전2020운동본부는 전국 비전2020운동 실천의 핵심적 역할 수행, 군전도 업무 관장 및 후원, 서울교회 성도 중 군 입대자 관리, 교회전도활동 주관 등 민족복음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이번에 새로이 출발하는 '99 비전2020운동본부 조직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홍정호 장로 **본부장** 이번생 집사
위 원 홍성주 이상호 신순우 탁경준
서 기 김규태 오승민
회 계 송인권 최양진
기획부 오광환 안인호 이대원 허 숙
전도부 조정식 장 덕 이동만
후원부 이영자 허상한 이남성
교육부 박성헌 최차순 주경자
공보부 이기홍 한정아 문형미

강남노회장로연합회
24일(토) 오후 5시 우리 교회당에서

서울강남노회 장로연합회가 24일 서울교회에서 열린다. 이종윤 목사는 이날 "카리스마와 교회 성장"라는 제목으로 강의할 예정이다.

교구일꾼수련회

교구일꾼수련회가 15일(목) 양재동 시민의 숲에서 열렸다.

동정

* 이종윤 목사는 23일(금) 명지대 용인캠퍼스 채플에서 설교한다.
* 최죽희 권사(3교구 대치다락방)는 21일(수) 개포동에 '만나분식'을 개업한다.
* 이종호 · 최승옥 집사(9교구 남양주다락방)는 24일(토) 구리시 인창동에 '나라주단'을 개업한다(☎ 0346 - 556 - 8312).
* 이주희 어린이(초등부, 이인수 · 나기태 성도 딸)는 대한예술진흥협회 주최 전국학생음악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 이번 주 식사는 홍성주 · 여현진 집사 가정에서 제공했다.
* 제 1 · 2권사회에서는 식당에 컵 300개를 기증했다.
* 베드로 제 3 · 4선교회는 19일(월)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기도회 및 현장 방문을 한다.

이사

* 민순구 장로 · 이영희 권사는 부천 오정구 원종동 오건아파트로 이사했다(☎ 032 - 671 - 1757).
* 김종자 권사는 산본 삼성장미아파트로 이사했다(☎ 0343 - 395 - 0915).
* 임귀순 성도는 영등포구 당산동 상아아파트로 이사했다(☎ 635 - 2835).
* 김현주 성도는 강북구 번동 주공아파트로 이사했다(☎ 987 - 3261).
* 전혜경 성도는 강남구 논현동 숭인빌라로 이사했다(☎ 543 - 5680).

■ 제 15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

❸ 4월 19일(월) 오후 2시 - 5시 20분
· 제 1교시 / 여호수아서 연구 (이종윤 목사)
· 제 2교시 / 치유목회의 방법과 실제
정정숙(총신대)

❹ 4월 26일(월) - 오후 2시 - 5시 20분
· 제 1교시 / 여호수아서 연구 (이종윤 목사)
· 제 2교시 / 영상 목회와 그 사례들
김항안(한국교회정보센타)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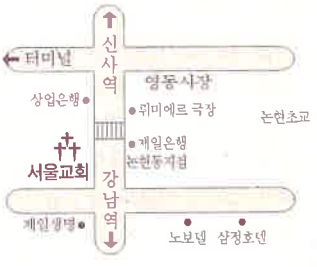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서울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장애인들에게 믿음과 소망이 커지도록
2. 탈북자들이 난민 지위와 보호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3. 목회자신학세미나와 서울성경대학을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